

A-6. 결합조직이식을 이용한 치근피개

손민욱*, 장문택, 김형섭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치은퇴축에 따른 치근표면의 노출은 치주질환이나 잘못된 잇솔질 습관, 교정적으로 치아를 이동하는 경우, 치아의 위치이상, 소대의 당김등에 의해 일어나며 치아의 지각과민이나 심미적인 문제, 치근우식 등을 유발한다. 이러한 치은 퇴축부위에 대한 심미적인 치료방법으로써 결합조직이식술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Langer and Langer(1985)는 상피하 결합조직이식술을 이용하여 56증례에서 2-6mm의 치근면 피복을 보고하였다. Raetzke(1984)는 envelope technique을 이용한 결합조직이식에서 평균 80%의 치근면 피복을 보고하였고 Nelson(1987)은 유경하 결합조직을 이용하여 전체 평균 91%의 치근면 피복을 보고하였으며 Harris(1994)는 100개의 치아를 대상으로 Nelson의 술식을 이용하여 평균 97.7%의 치근면 피복을 보고하였다

본 증례에서는 서로 다른 세 부위에서 결합조직을 채득하여 Langer and Langer의 술식으로 결합조직 이식을 시행하였다.

증례 1.

상악 구개측에서 Trap-door approach로 결합조직을 채득

증례 2.

구개판막술 시 얻어진 결합조직을 이용

증례 3.

치주판막술시 상악결절부위에서 채득한 결합조직을 이용